

T.S. Eliot의 주요 시에 나타난 ‘작가 반영성’의 문제

이 문 제

I

‘자기 반영성(self-reflexibility)’은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주요한 특성이다. M.H Abrams의 정의에 따르면, Vladimir Nabokov의 작품 *Pale Fire*에서 나타나듯이 ‘자기 반영성’은 특정한 작품의 줄거리 속에 자신의 창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는 경우를 가리킨다(*A Glossary of Literary Terms*: p.147). 인간이 자아 의식을 갖듯이, 작품이 스스로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탄생 과정에 관한 내용을 그 소재의 일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더니즘을 비롯한, 포스트모더니즘 이전의 문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다. 물론 그 이전의 문학사를 통해서 그러한 ‘자기 반영적’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기 반영적 요소가 과거의 작품들에서도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자아 의식을 바탕으로 ‘자기 반영성’이 다루어지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소설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작품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자기 반영성’에 상응하는 특징이 발견된다. 이 특징은 그 대상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자기 반영성’과는 구별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가가 갖는 예술가로서의 문제들—예술가가 되는 과정이나 예술가가 된 후의 창작 활동과 관련된—이 작품 속에서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실제 모더니즘의 문학은 공통적으로 작가가 예술가로서 갖는 문제들을 작품 속에 투사하고 있다. 예컨대, 언어의 문제, 작품의 형태에 관한 문제, 작가와 창작력 또는 작가와 사회와의 관계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Joyce, Pound 및 Eliot의 작품들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이 글에서는 그것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자기 반영성’과 구별하기 위해서 ‘작가 반영성(writer-reflexibility)’이라고 부른다. Joyce의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이 묘사하고 있는, 주인공 Stephen이 예술가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은 작가인 Joyce 자신의 삶에 대한 형상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Pound의 *Hugh Selwyn Mauberly*나 *The Cantos*에서 언급되는 시인의 문제들은 Pound가 작가로서 체험하는 예술적 문제들이다. 따라서 ‘작가 반영성’이라는 모더니스트 작가들의 작품 속에 이러한 작가 자신의 모습이나 작가로서 지니는 예술적 문제들이 언급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는 Eliot의 주요 시에 이러한 모더니즘의 ‘작가 반영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 본다.

II

Eliot의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Eliot가 그의 시속에서 추구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영원과

의 만남을 시도하고, 그 순간을 넓은 의미의 상징언어로 재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Eliot의 관심은 초시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진리를 과연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그것을 시적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따라서 시인인 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중의 하나는 언어의 정확에 대한 노력이다. Eliot의 시 속에서 Dante의 『신곡』에 대한 인유가 자주 발견되는 것은, 지옥에서 본 ‘불꽃의 언어’를 해석하고 그것을 오염되지 않은 상징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던 시인으로서의 Dante의 역할에 대한 Eliot 자신의 공감 때문일 것이다. 과거의 Dante와 현재의 Eliot가 다른 점은, Dante에게는 지옥에서 본 초시간적 진리를 해석하여 표현할 수 있는 ‘은유언어(metaphorical language)’가 존재했던 반면에, 현재의 Eliot에게는 ‘은유언어’는 사라지고 오염된 언어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Eliot의 시작 과정은, 언어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획득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Eliot의 주요 시들을 통해 반복되어 나타나며, 예술적 문제들에 대한 언급과 함께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되는 모티브의 출현은 Eliot의 시 전체를 의도적이든 아니든, 하나의 “macro-poem”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Eliot의 시세계를 “언어를 찾는 신화”로 파악하면서, 엄격한 끝(closure)이 나타나지 않고 ‘의미의 비결정성(indeterminacy)’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음을 들어, Eliot의 시 전체를 하나의 “oeuvre(macro-poem)”로 인식하는 Balchandra Rajan의 접근법은 Eliot의 시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In this way Eliot is able to combine an oeuvre that is logocentric in more than one sense with an indeterminacy that persists at its heart. The dramatic terminations — — undermine themselves or extend beyond themselves so that what is never quite spoken must once again be half-heard out of the triviality or the rage of events. (Balachandra Rajan: p.259)

그러나 Rajan이 Eliot의 시 전체를 “언어(the word)를 찾는 신화”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간과한 부분들이, 사실은, 형태적인 종결미가 부재한 사실이나 ‘의미의 비결정성(indeterminacy)’ 못지 않게 Eliot의 시 전체를 하나의 “macro-poem”으로 만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간과된 부분들을 조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시에 접근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요컨대, Eliot의 문제는 시인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예술가가 당면하는 ‘표현(expression)’ 또는 ‘전달(communication)’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언어에 대한 탐구와 함께, 그의 주요 시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되풀이 됨으로써 ‘작가 반영성’이라는 용어로 모더니스트인 그의 시세계를 특징짓도록 해준다.

III

시인으로서의 ‘표현의 문제’는 Eliot의 초기 시에서부터 발견된다.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은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적어도 Prufrock의 문제는 ‘표현의 어려움’ 혹은 ‘의사 전달의 어려움’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Prufrock이 경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은 소심한 현

대인이 갖는 딜레마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시인 자신이 작가로서 경험하는 예술적 표현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에 나타나는 “you and I”의 ‘I’를 Eliot 자신으로 해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I’를 Eliot와 동일시하면 결국 Prufrock의 문제는 시인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Prufrock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물론 시 속에서 묘사되는 ‘I’의 이미지가 항상 시인 자신의 모습과 구체적 관련을 보여주지는 않고, 오히려 모호한 상태에서 ‘의미의 비결정성’을 드러내지만, 시인의 목소리와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예컨대, 104행의 “It is impossible to say just what I mean!”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며, 비록 화자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110행의 “That is not what I meant, at all” 등은 작가가 경험하는 예술적 딜레마인 ‘표현의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Prufrock을 Eliot와 동일시하면, 여인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And when I am formulated, sprawling on a pin, / When I am pinned and wriggling on the wall”은, 대중 일반 앞에서 작품을 통해 평가받아야 하는 작가가 경험하는 심리적 두려움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동시에 여인들의 ‘talk’—단순한 parole로써의—의 대상이 되는 과거의 예술가 Michaelangelo는 곧 시인 Eliot 자신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경우,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human voice”에 의해서 화자가 익사를 당한다는 시적 서술은, 독자 일반의 여론이나 비판적인 비평가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매도당하거나 침몰해 가는 작가(들)의 현실이나 운명을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엘리고리적인 해석이 물론 작품이 갖는 의미의 깊이를 제한할 수도 있으며, 또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의 모든 의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Eliot가 시인으로서 체험하는 표현의 어려움의 문제나 독자 일반과 작가와의 관계 등을 함축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시의 proem이 시사하듯이, ‘불꽃의 언어’를 해석은 할 수 있으나 Dante와는 달리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상징어를 갖지 못한 시인 Eliot의 예술적 딜레마를 형상화 하는 작품으로서의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의 의미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Gerontion*의 경우도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상태를 묘사하는 이미지들이 시의 전체를 지배한다. 첫 두행 “Here I am, an old man in a dry month, / Being read to by a boy, waiting for rain”에 나타나는 노인의 모습은 수동적인 이미지일 뿐만이 아니라, 대화가 단절된 인간 조건에 대한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이 소년에게 무엇인가를 읽어줄 수 있는 상황이, 건강한 존재의 조건으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경우이지만, 역으로 소년이 노인에게 무엇인가를 읽어주는 모습은 노인 자신이 이미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상실한 것을 상징하고, 소년에게서 노인에게로만 향하는 일방성과 수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불완전한 커뮤니케이션만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Gerontion*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과거의 역사 속에, 그리고 현재의 역사 속에도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의 노인은, 역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만을 받기만 하고 스스로는 역사와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의 단면을 가리킨다. “The word within a word, unable to speak a word, / Swaddled with darkness”조차도 과거에는 경이로운 “이적(wonder)”으로 받아 들여졌으나 지금은 단지 “언어와 청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Balachandra Rajan: p.254)만을 가리킬 뿐이다. 특히, 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And an old man driven by the Trades/To a sleepy corner”의 바람 그 자체는 생명의 바람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바람이기는 하지만, 그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없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그러나 *Gerontion*에 나타나는 또 다른 바람은 생명이나 구원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Gerontion*에서 주기능을 하는 이 바람은, 오히려 의식과 무의식을 갈라 놓는 또는 영혼과 육체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Dante의 바람이다. 따라서 이러한 바람들의 이미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설사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바람일 경우에도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에서 중년의 모습을 지닌 인간이 경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은, *Gerontion*에서는 노년의 인간이 경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상실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The Waste Land*에서의 ‘작가 반영성’은 보다 미학적인 상징의 형태를 취한다. “V. What the Thunder Said”에서 상징어를 찾는 Eliot의 신화 여행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천둥소리 “Da”를 “Datta”, “Dayadhvam”, “Damyata”로 해석하는 힌두교의 우화(fable)를 인용하는 Eliot의 시도는, 불꽃의 언어—천둥소리는 불꽃인 번개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언어를 찾는 시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Dante가 지옥에서 Guido와의 만남시 해석해야만 했던 불꽃은, 이제 현실 속의 번개로 변형되어 나타나며, 그 언어는 천둥소리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한 그의 예술적 시도가 *The Waste Land*라는 한 편의 작품이 갖는 시적 완성도를 높였는가는 의문이지만, 그리고 그가 힌두교의 우화를 도입한 이유가, 과연, 단순히 서구 정신문화의 자족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동양의 신비적 정신 세계를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 문명의 구원처라고 인식했기 때문인가는 접어두고라도, 그것은 시인으로서의 Eliot가 지닌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The Waste Land*가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시적 완성도를 가졌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Dante의 경우, 불꽃 자체가 동시에 상징어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불꽃과 상징어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점이다. 힌두교의 우화에서 ‘신’과 ‘인간’, 그리고 ‘악마’가 각각 달리 해석하는 “Da”는 이제 시인이 직접 해석하여 은유언어를 통해서 재현해야될 상징으로 존재한다. 문제는 Eliot 자신이 그 상징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을 부여하지 않고 “Shantih shantih shantih”라는 Upanishad의 주문만을 되풀이 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보는 “언어를 찾는 신화”의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Four Quartets*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이와 같이 *The Waste Land*는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이나 *Gerontion*보다 시인으로서 Eliot가 갖는 궁극적인 문제—언어를 찾는 신화 여행—를 더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V. What the Thunder Said” 이전의 부분에서는 재생력을 상실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러한 현대 서구 문명의 구원 가능성의 문제가 주조를 이루지만, 시인으로서의 Eliot가 갖는 예술적 모티브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Ash-Wednesday*는 많은 평자들에 의해서 Eliot 자신의 개종과 관련된 자기 고백적 시로 분류된다. 그리고 실제 *Ash-Wednesday*를 지배하는 이미지나 모티브는 성경이나 카톨릭의 전례(liturgy)등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Ash-Wednesday*를, 감각이나 욕구와 관련된 형

이하학적 세계를 지양하고 종교적 귀의를 통한 정신적 구원의 세계를 추구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불완전하지만 '지상의 낙원(earthly paradise)'에 대한 비전도 IV부에서는 엿보인다. 그러나 지상의 낙원은 분명한 구원의 세계가 되지 못하며, V와 VI부에서 "the Word"와 "the word"는 아직 들리지도 발견되지도 않고 그것이 발견될 곳은 "여기(Here)"가 아담이 이야기된다. 그러므로 화자의 자기 부인을 통한 "the Word"와의 만남을 위한 여정은 활자상으로는 끝나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며, 또 다른 시작을 예견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적 구원의 모티브로 가득찬 시임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의식속에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시인 Eliot의 모습이 여전히 발견된다. Grover Smith는 *Ash-Wednesday*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지적한다.

Ash Wednesday commences with a brilliant specimen of prolonged ambiguity. This sets forth two major themes: the hoplessness of the return to joys of sense and the hoplessness of the return to God. Along with these is a minor theme, completing a triad as in Part V of the *The Hollow Men*: the artist's failure to create. Like the allegory of man and the Church, the periodically emergent subject of artistic striving is veiled here ... (Grover Smith: p.139)

단지 감추어져 있다는 위의 언급이외는, "예술적 창조의 실패"에 대하여 Smith는 어떠한 분석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Smith의 지적대로 "예술적 창조의 실패"에 대한 '작가 반영적' 모티브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되풀이 해서 읽을 때마다, 어디에선가 Eliot의 '시적 자아(artistic self)'의 목소리가 들려움을 부정할 수가 없다. 실제 그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부분이 발견된다. I부의 34행 "Because these wings are no longer wings to fly/But merely vans to beat the air"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 첫 5행 다음의 괄호 안에 "(Why should the aged eagle stretch its wings?)"라는 서술이 있기 때문에 34행의 "wings"의 주체를 독수리로 보고, 늙은 독수리는 육체적으로 쇠약한 화자의 이미지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the aged eagle"은 3인칭의 시각에서 서술되어 있으며 34행의 "these wings"는 1인칭의 시점에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Ash-Wednesday*를 통해서 화자의 시점이 자주 바뀐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these wings"의 주체를 독수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these wings"의 주체는 화자와 동일시해야 하나, 이 화자 자신과 독수리와는 거리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the aged eagle"이 언급된 것은 단순한 비유나 유추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these wings"는 화자의 날개가 된다. 그런데 *Ash-Wednesday*를 Eliot의 자기 고백적 작품으로 보는 일반적 경향을 따라 화자를 시인으로 볼 경우, 시인이 날개를 지닐 수 있는 경우는 문학적 전통 속에서 Muse의 날개와 Pegasus의 날개의 두 경우이다. 그리고 시 전체의 어조나 내용을 고려할 때, 여성 신인 Muse의 날개는 화자의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these wings"는 시인의 날개이며 동시에 Pegasus의 날개가 된다. 또 'wings'는 *Ash-Wednesday*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타난다—"The white sails still fly seaward, seaward flying/Unbroken wings" 아직도 날 수 있는 "unbroken wings"의 이미지에서 시작을 중단할 수 없는 Eliot 자신의 모습이 엿보인다. 또 시인으로서의 Eliot의 구체적 모습은 I부의 32행의 "Let these words answer/For what is done, not to be

done again”에서도 발견되는데 차라리 이 부분은 ‘작가 반영성’ 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자기 반영성’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면에서는 *Resolution and Independence*가 Wordsworth에게서 차지하는 위치를 *Ash-Wednesday*가 Eliot에게서 차지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인의 ‘작가 반영적’ 목소리는 *Ash-Wednesday*에서 약화되어 나타나며, 종교적 이미지와 문학외적 구원의 문제에 주도권을 양보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Eliot의 “언어를 찾는 신화”의 여행은 형식적으로는 *Four Quartets*에서 종료된다. *Four Quartets*에서 Eliot가 도달한 예술적/철학적 종착점들이 과연 그 동안 시인이면서 철학자인 Eliot가 추구해 오던 모든 것의 궁극적인 완성인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이전의 어느 시보다 Eliot의 예술적/철학적 이론체계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시인으로서의 Eliot의 모습이 어느 시보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Four Quartets*의 상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시적 완성도를 의심받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Four Quartets*에 나타나는 Eliot의 가장 중요한 예술적 관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form’ 또는 ‘pattern’을 찾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오염된 언어의 정화를 통해서 ‘pattern’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구하는 것이다. ‘pattern’의 문제는 주로 「Burnt Norton」에서 언급된다. 불교의 화두와 같은 초논리적 서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Eliot의 절대진리가 발견되는 “the still point”는 움직임도 정지도 아니면서 유일하게 “the dance”가 존재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the still point”는 “the pattern”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 Only by the form, the pattern,
Can words or music reach
The stillness, as a Chinese jar still
Moves perpetually in its stillness. (T.S. Eliot: p.175)

예술을 상징하는 “words”나 “music”이 “the pattern”을 통해서만 “the stillness”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술 작품의 ‘형식’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는 Eliot의 미학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Eliot의 “the pattern”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이며—“The detail of the pattern is movement ...”—, 이러한 pattern에 의해서 도달되는 “the stillness”는 단순한 정지의 세계가 아니라, 정지 상태이면서도 동시에 움직임의 세계인 것이다. Eliot의 시가 표면적으로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spatial form”을 지니는 것도, 이러한 Eliot의 미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attern’에 대한 Eliot의 시각은 「Little Gidding」의 V부에서 역사는 “timeless moments”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pattern’이기 때문에, 역사를 갖지 않은 국민은 시간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시적 서술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역사까지도 ‘pattern’의 형태로 파악하는 Eliot의 시도는, 초시간적 진리—logos—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찾으려는 모더니스트 예술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언어의 정화에 관한 모티브는, 불의 이미지가 지배하는 「Little Gidding」의 주제를 형성한다. 이 시에서 Eliot는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정화’를 강조하는데, 도덕적 정화와 언어의 정화가 그것이다. 정화의 주제가 불의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 속에 등장하는 것은, 불이 갖는 속

성—파괴와 파괴를 통한 재생(정화)—과 적절하게 어울린다. 여기에서 언어의 정화에 대한 모티브는 이미지를 통한 형상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령(compound ghost)”의 입을 통하여 직접 서술된다.

Since our concern was speech, and speech impelled us
To purify the dialect of the tribe
..... (T.S. Eliot: p.194)

그리고 정화된 언어가 갖는 구체적인 특성은 다시 V부에서 화자의 입을 통하여 제시된다.

..... (where every word is at home,
Taking its place to support the others,
The word neither diffident nor ostentatious,
An easy commerce of the old and the new,
The common word exact without vulgarity,
The formal word precise but not pedantic,
The complete consort dancing together)(T.S. Eliot: p.197)

Eliot가 25년 여의 시작 과정을 통해서 추구해온 “언어를 찾는 신화”가 도달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특성을 갖는 언어로 과연 *Four Quartets*가 쓰여졌는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시인 Eliot가 가지고 있던 시어에 대한 태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명시된다. 그러나, Eliot의 모든 시 중에서 시학적 문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위의 경우는 ‘작가 반영성’이 그 정도가 지나칠 때 오히려 작품의 예술성을 손상시키는 경우의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론을 다루는 에세이에서나 있을법한 이러한 산문적 서술이 작품의 시적 완성도에 기여치 않음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느 면에서, 이같은 점은 모두에서 지적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자기 반영성’을 예견케 하는 것처럼 보인다.

IV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Eliot의 시에서 ‘작가 반영성’은 작가가 경험하는 예술적 ‘표현의 어려움’이 작품의 주인공—화자—이 경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pattern’을 표현할 오염되지 않은 언어를 찾는 탐구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작가 반영성’은 Rajan이 간과한 부분으로, 그 자신이 지적한 Eliot의 작품에 형태적 종결미가 부재하거나 의미의 비결정성이 작품 전체를 지배한다는 사실과 함께, Eliot의 여러 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작가 의식’을 노정시키면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주제상으로 시와 시를 통합시켜줌으로써 Eliot의 시 전체를 하나의 macro-poem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작가 반영성’은 *The Waste Land*나 *Ash-Wednesday*에서는 약화되거나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Four Quartets*에서는 지나쳐 오히려 작품의 예술성을 손상시키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스트의 작품들 속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러한 ‘작가 반영성’은 작가가 갖는 예술적 문제들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모더니즘의 한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며, 동시에 모더니스트 작가들에게 있어서 예술적 창조와 그 방법을

탐구하는 작업이 그들의 의식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Works Cited

- Abrams, M.H.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88.
- Eliot, T.S.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78.
- Smith, Grover. *T.S. Eliot's Poetry and Play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Rajan, Balachandra. *The Form of the Unfinish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